『짐을 서로 지라』

찬 양 찬양 2곡
신앙고백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찬 송 259장 -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대표기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도
말 씀 갈라디아서 6:1-5

갈라디아서 6:1-5 (NKRV)
1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2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3 만일 누가 아무 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4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5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오늘의 키포인트 - 신앙생활도 인생살이도 서로의 짐을 져 줄 때 아름답게 이뤄짐을 믿고 함께 짐을 져주는 교회가 됩시다.

말씀 나누기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아주 유명한 대회입니다. 여기 참여한 어떤 선수가 결승점을 앞두고 자기 앞에서 쓰러진 다른 선수를 부축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자기의 기록을 단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경기후 그는 자기 심경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록을 단축하는 일도 좋지만 누군가를 도와 함께 들어온 일은 더 좋은 일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중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등의 지역을 선교하며 세운 교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가만히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며 그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강조한 할례와 율법의 행위를 추구하는 것을 헛된 영광(갈5:26)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KENODOXOI” Kenos(허무한, 속이 빈) + Doxa(영광)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허무한 영광, 속이 비어있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허영’이라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헛된 영광을 추구하게 되면 2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서로 노엽게 하게 되고 둘째로 서로 투기하게 되는 것(갈5:26)입니다. 이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나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말씀 1절에서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언급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에 해당하는 것은 고의성이 없는 죄를 말합니다. 즉 고의성이 없는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는 말입니다. ‘온유한(프라우

스)' 이라는 말은 야생마가 길들여 졌을 때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는 말이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져서 그것을 조절할 수 있을 때 '프라우스'(온유한) 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무지함과 죄악됨을 깨닫고 하나님께 길들여진,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을 살피며 조율할 줄 알 때 우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다른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됩니다. 율법은 자기를 검증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온유한 영의 도움을 받아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을 살피고 이웃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것이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는 길입니다. 이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바울이 여기서 언급한 짐은 개인적인 짐이 아닙니다. 혼자서 질 수 없는 짐, 곧 공동체적인 짐을 뜻합니다. 원어로 '바레'인데 이것은 영적, 정신적, 사회적 부담이 되는 짐입니다.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서로 짐을 져주어야만 비로소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질서를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새로운 법 "서로 사랑하라"(요13:34-35)을 뜻합니다. 이렇게 서로 짐을 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지리의 힘"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학자 팀 마샬은 이 시대를 가리켜 "장벽의 시대"라고 합니다. 인터넷과 SNS, 유튜브로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이어진 초연결 시대에 우리는 이전 세대보다 더 높고 견고한 장벽들이 곳곳에 세워져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은 바로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이런 현상이 만연해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으로, 경제적 수준으로, 지역적 차이로 모두가 분리되고 분열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짐을 서로 지라는 이야기는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성경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갈6:2).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사람들 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농부들은 지게를 이용해서 자기가 질 수 있는 짐의 3배나 되는 짐을 옮겼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이 지게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오셨듯이 우리는 성령의 지게로 나의 힘으로 들 수 있는 무게보다 더 많은 짐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짐을 져주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춘천동부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 - 삶 나누기

1.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었던 경험이 있으면 구역식구들과 이야기 나눠봅시다.
2. 다른사람의 죄와 약점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본문말씀에서 찾아 말해봅시다.
3. 내가 속한 공동체(구역, 가정, 교회, 회사 등)에서 내가 져야 할 짐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중보기도

1.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신앙의 깊이가 더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2. 육체와 정신의 고통, 경제적 결핍과 고통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소서
3. 교회 안에 성령 충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4.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 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봉헌찬송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봉헌기도** 인도자 **주기도문으로 구역예배를 마치겠습니다.**